

# 국힘 출마자들 “이종섭 호주대사 자진 사퇴해야”

“지금은 민심 살펴야할 때 빨리 매듭짓는 게 최우선 황상무 사퇴 늦었지만 다행”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전격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즉각 귀국’ 요구를 넘어서서, 일부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이종섭 대사를 향한 ‘자진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황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대사 문제까지 매듭짓지 못하면 약재를 떠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다.

경기 권역 선대위원장인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이종섭·황상무 논란’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싸늘하게 식고 있다’면서 ‘황 수석 사의를 받아들인 것은 정말 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사에 대해선 ‘본인 으로서는 안타깝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자진 사퇴

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소환 조치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선 “원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지금은 선거 상황”이라며 “속된 말로 공수처에서 계속 안 부르고 질질 끌면 민심은 악화할 텐데 언제까지 계속 기다릴 것인가. 이 대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언론과의 통화에서 황 전 수석 사퇴에 “만사지탄”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으로 민심의 무거움을 깨닫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자진사퇴론”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출마자도 통화에서 “지금은 선거 때 아닌가. 민심을 살펴야지 이성과 논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면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사퇴된 뒤든 빨리 매듭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나경원(서울 동작을) 공동선대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황 전 수석의 사퇴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고, 이 대사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민심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20일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 강당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방산협력 6개국 공관장 회의 이종섭 호주대사 곧 귀국한다

서울 대면회의 이례적 개최

다음 주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협력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하는 공관장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돼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귀국한다.

외교부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오는 25일부터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의에서 방산협력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은 현지 정세와 방산 시장 현황, 우리 방산기업의 기회요인과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방산기업과 우리 무기 체계의 운용 현황을 시찰하고 관련 기업들과



이종섭 대사

현장 토의를 가질 예정이다.

회의 기간과 세부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호주 대사를 비롯한 6개국 공관장들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내달 말 서울에서 모든 공관장이 참석하는 재외공관장회의가 이미 예정된 가운데 별도로 소집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6개국 대상 방산협력 공관장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역 공관장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대면 회의를 여는 것도 이례적이다.

공관장 대면 회의는 지난해 에티오피아에서 인근 6개국 공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홍해-야테만 공관장 회의처럼 시급한 현안이 있거나, 외교부 장관이 순방하는 경우에 현지 공관장들을 대상으로 주로 열렸다.

해병대 채보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호주 대사는 지난 10일 출국했으며, 그의 귀국 문제가 최근 당정 갈등의 쟁점이 됐다.

/연합뉴스

## 한동훈 “황상무 등 문제 다 해결…당과 정부는 공동운명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용산발 리스크’로 주목받은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 문제가 “오늘 다 해결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안양 거리 인사에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의 민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중앙선대위에서도 “저희는 민

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이라며 “그 차이를 이런 상황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의 귀국과 황 수석의 자진 사퇴로 용산발 리스크 출구 전략을 찾는 동시에 민주당의 양문석·조수진·권항엽 등 논란이 된 후보들의 문제를 고리로 대야 공세의 발판을 다시 마련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후폭풍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의) 과거 발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지적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

체했다”고 상기시켰다.

도태우(대구 중·남구)·장예찬(부산 수영) 공천 취소와 두고 한 말이다. 이들은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이 대사 및 황 수석 거취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당정 갈등 2라운드’라는 해석이 나오는 기자들 질문에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공동체”라고 답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꼭두하는 이재명 사당과 통진당 중북세력이 이 나라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개혁신당, 비례 1번 이주영·2번 천하람

개혁신당은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례 후보 2번에 천하람 변호사를 각각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번을 받은 이 교수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기피와 의

료 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소아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라고 소개했다.

2번을 받은 천 변호사는 국민의힘 순천갑동협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전략적 판단으로 개혁 성향의 소신 있는 정치를 해온 천 변호사를 공천하게 됐다”며 “전해 듣기로는 천 변호사의 개혁 성향과 선명한

정치에 대해 공관위 내에서 높은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3번은 기초과학자인 문지숙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교수, 4번은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편의점주 박대중(필명 봉달호) 대변인,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에 들어갔다.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은 6번, 정지현 변호사는 7번, 보건사회정책전문가인 과노성 박사는 8번, 3군사관학교 최초 여성도 출신인 박경애 전 공군 소령은 9번, 조성주 세번재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10번으로 공천됐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건물 리모델링	공장신축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